

정혜결사는 계정혜 제대로 공부하자는 운동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⑧

계정혜(戒定慧)

자성정혜
 자성정혜에서 정혜는 '계정혜(戒定慧)'의 준말이다. 계정혜 삼학(三學)은 불교의 대표적인 교설이다. 그만큼 초기불교 이후 아비담마 불교, 대승불교, 선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논의되어 왔다. 보조지눌의 정혜결사도 따지고 보면 계정혜 삼학을 제대로 공부하자는 수행 공동체 운동이다. 인간의 정신적 건강에 정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에서 발생한 교육학이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정의(知情意)란 개념이 있다. 지(知)는 인지나 지적인 측면을 말하고, 정(情)은 인간의 가슴과 관련된 정서의 측면이라면, 의(意)는 통기와 의지의 측면을 가리킨다. 의지는 계(戒)와 연결된다. 계란 인간이 지켜야할 윤리적인 측면인데, 이것은 의도와 의지로서 지켜할 부분으로서 생활의 일부이다. 정(定)은 마음의 평정으로서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된다.

계는 잘못 막고 악 그친다는 뜻
 정은 이치에 맞춰 산란심 거둬
 혜는 미혹을 깨뜨린다는 의미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과 불안과 같은 감정에 휩쓸리면 고통스럽다. 마음의 고요는 정서적인 안정이나 조화로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혜(慧)는 지혜이지 결코 지적인 측면은 아니다. 반면에 심리학에서 지(知)는 인지적인 측면에 속한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지만, 혜가 보다 깊은 내적 본성에 연결된 개념이다.

우리는 지적으로 여러식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삶의 질서는 무너져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은 명상수행에서 계정혜 삼학을 강조하고, 교육자나 심리학은 지정의 계발을 강조해 왔다.

전통적인 의미

정혜에 대한 논의는 불교학뿐만 아니라 선불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이다. 정혜결사를 주장한 보조지눌의 경우도 계정혜를 강조하고, 선불교에서 정혜에 대한 해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전통적인 계정혜에 대한 개념을 <익진기(翼眞記)>를 인용하면서 제시한다.

"계(戒)는 잘못을 막고 악을 그친다는 뜻

으로서 삼학도(三惡道)에 떨어짐을 면하게 한다. 정(定)이란 이치에 맞추어 산란한 생각을 거두어들이는 뜻으로 욕심을 뛰어넘는다. 혜(慧)란 법을 가리어 공(空)을 관한다는 뜻으로 생사에서 벗어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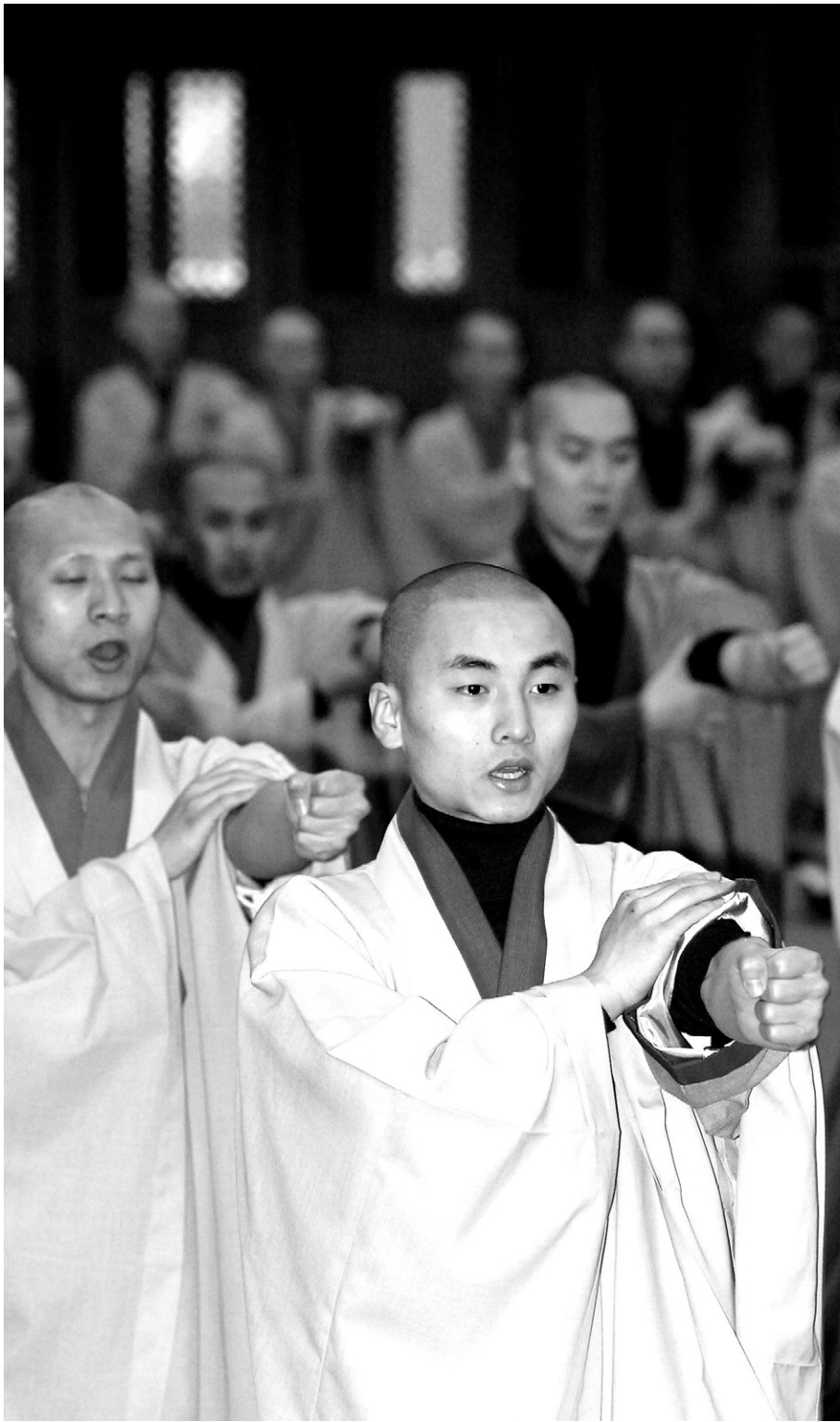
여기서 보듯이 <익진기>의 관점은 계란 악을 멀리하고 선을 봉해하는 것을 말하고, 정이란 마음의 산란을 거두어들이는 수행이고, 혜는 미혹을 깨뜨린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해석은 엄격하게 말하면 아비담마적 의미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아비담마의 논서인 <아비담마집이문족론(阿毘達磨集異門足論)>에서 보면, 지(止, samatha)를 '산란함을 거두어들여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一境]에 모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관(觀, vipassan?)에 대해서는 '법을 잘 간택(揀擇)하여 지혜로서 관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마타는 처음 선정을 닦는 때를 말하고, 위빠사나는 지혜의 출발이다. 처음 명상 수행할 때는 지관이라 하고, 지관(止觀)이 좀더 성숙하고 깊어진 상태가 되면 정혜(定慧)라고 부른다. 지관과 정혜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계열의 술어로서 그 깊이에 따라서 달리 이름을 할 뿐이다. 명상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름과 개념 정의는 마음의 계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관점을 함축한다. 곧 계란 악을 멀리하고 선을 봉행하는 것이요, 정이란 산란함을 고요함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라면, 혜는 여러식음을 깨뜨려서 지혜를 계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의 정혜는 과정이 있고 점진적인 모양이 있고 일정한 정도의 노력이 요청되고 일상에서의 경향이 함께 작용한다.

선불교에서의 이해

계정혜의 삼학이란 주제는 역시 선불교에서도 핵심된 과제이다. 이런 논의는 선불교의 대표적인 어록인 <육조단경>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다. <육조단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수와 혜능의 대립된 계승은 바로 정혜와 관련된 수행에 대한 해석이다. 주지하다시피 신수의 계승은 마음이란 거울에 때가 끼어있기에 매일 닦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혜능의 계승은 본래 마음의 거울이 없어서 닦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번뇌가 존재하는가 하는 여부이다. 번뇌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혜능의 돈오(頓悟)이고, 번뇌가 존재



삶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계정혜 삼학의 수행정진은 필요하다.

하기에 점차로 닦음을 의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신수의 점수(漸修)이다. 양자를 통합하는 방식이 바로 보조의 돈오점수(頓悟漸修)이다. 보조는 일단은 먼저 남종선의 돈오사상을 먼저 계승한다. 그러면서 정혜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이치에 들어가는 문(頓悟)은 선정과 지혜가 서로 다름이 없다. 그 요점은 자성의 바탕과 작용의 두 가지 뜻이다. 이는 공적 영지(空寂靈知)가 바로 그것이다. 선정은 바탕이고 지혜는 작용이다. 바탕의 작용이 지혜이니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작

용하는 바탕이니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선정이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지혜가 선정이기에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

선정과 정혜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곧 근본적인 마음의 정혜등지(定慧等持)이다. 정혜가 같은 내용이라는 말은 바로 마음의 본질은 결국 공적하고 영지이기 때문이다. 공적은 선정이요, 영지는 지혜이다. 이런 점에서 <수심결>에서는 정혜등지(定慧等持)라고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에서는 정혜쌍수(定慧雙修)란 표

현을 사용한다. 초기불교 전통에서는 선정과 지혜는 별도로 논의가 되기도 하고, 함께 논의하기도 한다. 별도로 논의한다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분명하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측면도 있다. 하지만 보조국사는 이들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양자를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고, 양자를 통합하여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해하는 심리학적인 기반은 바로 대승의 불성, 자성, 영성사상이다. 선정과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이고 본성의 긍정적인 자질이라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육조단경>에서 분명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마음에 잘못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은 자성의 정이요, 마음에 여러식음이 없는 것은 자성의 혜이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 계정혜 삼학은 계발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내면에 갖추어진 자질이다.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

禪의 자성 견지에서는 마음에
 잘못없음이 계, 산란없음이 정
 여러식음이 없음이 혜라고 설명

견해야할 대상이다. 이렇게 정혜는 이미 우리의 본성, 자성에 갖추어진 깨달음 '자성정혜(自性定慧)'라고 부른다. <육조단경>의 관점은 마음의 자성에는 제거하거나 수정해야할 악, 산란, 미혹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텅 비어 신령스럽다. 이것이 자성에 기반한 돈오적 명상수행이다.

복종 신수(神秀)의 관점은 더럽혀진 마음을 인정하고 점차로 깨끗한 근본 마음으로 전환시켜가는 관점이라면, 남종의 ??육조단경??은 처음부터 곧장 깨끗한 자성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이를 계승한 보조국사는 마음의 자성은 본래 고요하고[心性本定], 번뇌는 본래 존재하지 않음[煩惱本空]의 자가, 돈오에 의지한 수행이 참된 수행[眞修行]이라고 말한다.

"마음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고 번뇌는 공한 줄을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수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른바 악을 끊으면서도 끊은 바가 없고, 선을 닦으면서도 닦는 바가 없어야 참된 뒤움과 끊음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조국사는 <육조단경>의 경우처럼 점수를 철저하게 묵살시키거나 잘못된 수행으로 배제시키지 않는다. 초보자에게, 전문 수행자에게도 여전히 방편적이고 치료적인 대치의 뜻[方便對治義]이 있음을 인정한다. 보조국사는 언제나 자성에 기초한 돈오에 기초하여 제대로 수행하여야 잘못된 병통이 없음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번뇌가 오랜 습기에 말미암아서 금방 제거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깨달음 점수적인 방편을 놓을 수가 없음을 말한다. 자성정혜는 돈오적인 입장이고, 수상정혜는 점수적인 이해이다. 수상정혜(隨相定慧)는 '이치에 맞추어 산란을 거두고 현상을 선택하여 공(空)을 관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위에 들어가는' 방식의 수행법인데 반하여, 자성정혜는 자성에 근간을 둔 정혜로서 돈오적인 입장이다. 결국 <수심결>의 돈오점수는 자성정혜의 입장에서 수상정혜를 수용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돈오와 점수를 함께 인정함으로써 논리적으로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보조국사는 오히려 논리보다는 현실적인 근거에 보다 충실한 입장을 선택한다. 자성정혜는 혼침과 산란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수상정혜는 오랜 습기에 의한 혼침과 산란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것에 대해서 <수심결>에서는 근거와 자성이라는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한다. 돈오에도 뛰어난 근거와 이 보다는 낮은 보통의 근거가 있다고 본다. 근거가 낮은 이는 깨달음 이후에도 '점차적인 방편을 취하여 길을 빌리고 의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하더라도 심성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공함을 먼저 깨달았으므로, 점수의 낮은 근거의 오염된 수행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자성정혜의 돈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품은 그 자체로 공적한 영지(靈知)이므로 비록 수상의 대치방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이나 의혹이 없어 물들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 이전의 수행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설사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번뇌와 산란이 존재하는 대치적인 의미는 다시 그것에서 의혹과 집착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상수행은 깨달음의 돈오에 의지한 수행이어야 참된 수행이라고 말한다. <끝>



명상상담연구원장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 과정

(1) 초·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육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 육건이
-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 교육시간 : 초·중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개강일시 : 2012년 3월 8일(목) (수시모집가능)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 락 처 : 054)975-433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